24-08(통권 966호) 2024.05.31

경제주평

■ 피봇(pivot)까지 남은 시간, 경제심리 안정을 위한 '브릿지 전략' 필요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4년 2분기)

현대경제연구원

목 차

■ 피봇(pivot)까지 남은 시간, 경제심리 안정을 위한 '브릿지 전략' 필요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4년 2분기)

Executive Summary ····· i

1. 개 요 ····· 1

2. 수요부문별 및 산업별 경기 동향 ····· 2

3. 향후 경기 리스크 요인과 경기 전망 ····· 12

4. 시사점 ····· 17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 제 연 구 실 : 주 원 경제연구실장 (02-2072-6235, juwon@hri.co.kr)

Executive Summary

□ 피봇(pivot)까지 남은 시간, 경제심리 안정을 위한 '브릿지 전략'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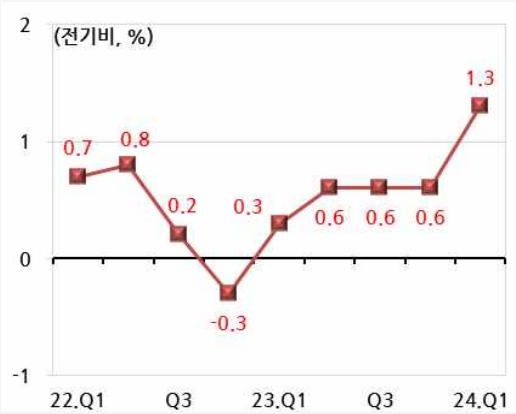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4년 2분기)

■ 개 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상승) **한국 경제는 2분기 현재 수출 경기의 회복력이 낙수효과를 통해 강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는 국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24년 1분기 경제성장률(속보치)은 전기비 1.3%로 '23년 4분기(0.6%)보다 크게 높아졌으며, 전년동기대비로는 3.4%를 기록 중이다. 수요 부문별로 보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설비투자 침체(전기비 △0.8%)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0.8%), 건설투자(2.7%), 수출(0.9%)이 모두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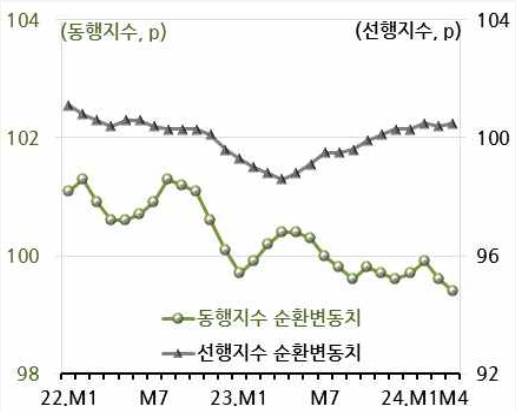
한편, 선행지수순환변동치가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으나, 동행지수순환변동치 상 경기 저점은 아직 식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4월 현재 99.4p로 기존 저점인 '23년 12월 및 '24년 3월의 99.6p를 하회하였다. 한편, 미래 경기 방향을 예고하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23년 4월(98.6p)에 저점을 형성한 이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경기 전환 신호를 예고하고 있다.

< 분기 경제성장률 >



자료: 한국은행.

< 경기 동행 및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자료: 통계청.

■ 수요부문별 및 산업별 경기 동향

(1) 수요부문별 경기 동향

(소비 회복 지연) **수출(생산) 측면의 경기 회복세가 소비에 미치는 낙수효과(落水效果, trickle-down effect)는 아직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화 중심의 소비 지표인 4월 소매판매는 전월비(△1.2%) 및 전년동월대비(△2.6%) 모두 감소하였다. 특히, 소비 항목별로도 준내구재, 비내구재, 내구재 소비가 모두 침체를 지속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구재(전년동월대비 △3.5%)의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가계의 구매 여력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비투자 침체) 고금리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급증, 내외수 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ICT 이외 투자의 침체가 지속 중이다. 4월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전년동월비('23년 4월 대비) 2.3% 감소하였으며, 전월대비('24년 3월 대비)로도 0.2% 감소하였다. 다만, 설비투자의 핵심인 4월 ICT투자가 전년동월 기준으로 2.3%의 증가세로 전환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편,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증가율과 자본재수입액증가율이 모두 하락하면서 설비투자의 회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건설수주 반등)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액은 증가세를 지속 중인 가운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이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반등하는 모습이다.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4월 중 공공부문이 침체(전년동월 △0.5%)되었으나 민간부문이 증가세(전년동월 3.4%)를 지속하고 있다. 한편, 향후 건설 경기를 예고하는 건설수주액(선행지표)은 4월에 들어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4월 수주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41.9%로 예상외로 큰 폭의 반등세를 보였는데, 공종별로도 4월 중 공공건설수주(전년동월비 24.2%)와 민간건설수주(51.8%)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출 경기 리질리언스 강화) 미국 시장의 호조, 반도체 수출 회복, 전년도 기저효과의 영향 등으로 수출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 중이다. 4월 수출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3.8%로 3월(3.1%)보다 증가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수출 회복세가 강화되는 모습이다. 한편, 4월 수출 물량증가율이 전년동월대비 9.6%이며, 수출 단가증가율이 4.2%로 물량증가가 수출 경기를 견인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對미국 수출이 호조를 지속 중인 가운데 對중국 수출이 미약하나마 증가세를 기록 중이며, 품목별로는 대부분 증가세를 시현하였으나, 철강제품, 이차전지 등 일부 품목은 부진한 모습이다.

(실업률 상승 속 제조업 고용창출력 강화) 실업률이 상승하고 구직단념자도 증가하는 가운데, 취업 시장에서 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이 높아지고 있다. 4월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23년 4월 2.8%)보다 악화되었으며,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도 '23년 4월 32.4만 명에서 '24년 4월 36.9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4월 신규취업자(취업자 수 증감)는 전년동월비 26.1만 명으로 3월의 17.3만 명보다 증가하였는데, 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이 확대되는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4월 취업자수 증가의 대부분은 50세 이상 연령층이 주도(전년동월비 30.8만 명)하고 있으며, 청년층 일자리는 축소(15~29세 △8.9만 명)되는 모습이다.

(공급측 인플레 압력 상존) 근원물가 상승률의 하락 추세를 고려할 때 수요측 인플레이션 압력은 강하지 않다고 판단되나, 고유가, 고환율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기후적 요인에 의한 농산품 수급 차질 등의 공급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존한다. 4월 수입물가는 국제유가 및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3월 △0.5%의 감소세에서 2.9%의 증가

세로 전환되었다. 이에 4월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농림수산품, 공산품, 유틸리티, 서비스 등의 품목군 물가가 모두 상승하면서 3월 전년동월비 1.5%에서 4월에 1.8%로 높아졌다. 한편,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월(3.1%)과 3월(3.1%)에 일시적으로 3%대로 높아졌으나 4월 중 2.9%로 다시 하락하였다. 품목별로는 농산물 가격이 급등(전년동월대비 20.3%)해 있는 상황이나, 공업제품과 서비스 물가상승률이 2%대 초반의 안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간주체의 경기 방향성 탐색) 가계의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정체 중이며, 기업의 투자 심리도 기준치 아래에서 방향성을 모색 중이다. 가계의 현재 경기 판단이나 향후 경기 상황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는 CSI는 '22년 하반기 이후 개선세를 보이다가 최근 정체되는 모습이다. 가계의 현재 경기상황에 대한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 CSI는 5월 67p에서 4월(68p)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 중이다. 한편, 기업심리지수를 보면, 한경협 BSI(전망)는 5월 94.9p에서 6월에 95.5p로 소폭 상승하면서 개선 추세를 지속 중이나 기준치(100p)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은 6월 BSI(전국/전산업/업황전망)도 74p로 5월(73p)보다 상승하였으나, 역시 장기 추세(77p)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2) 산업별 경기 동향

(전산업) 4월 전산업 생산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확대되면서 대부분 산업 생산이 활력을 되찾고 있다. (제조업) 재고·출하 사이클상 완연한 시장 수요 회복의 모습을 보이면서 제조업 경기의 추세적인 회복을 강하게 시사한다. 수출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최근 제조업 생산의 확장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평균가동률도 높아지는 모습이며, 출하가 증가세로 전환되고 재고증가율이 감소하면서 제조업의 시장 수요 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비스업) 재화와 서비스 소비 전반의 상황을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전월비 기준 서비스업 생산은 3월 △1.1%에서 4월에 0.3%의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다만, 도소매(전월비 1.7%), 운수·창고(1.3%) 등의 생산은 호조를 보이나, 부동산(△1.8%), 숙박·음식점(△2.1%) 등은 위축되는 등 업종별로는 생산 활력에 차이가 있다. **(건설업) 건설업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4월 중 토목 부문과 건축 부문이 모두 큰 폭으로 반등하였다.** 1분기에 침체를 보였던 건설수주(전년동월비)는 4월에 들어 건축 부문(34.4%)과 토목 부문(63.8%)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향후 경기 리스크 요인과 경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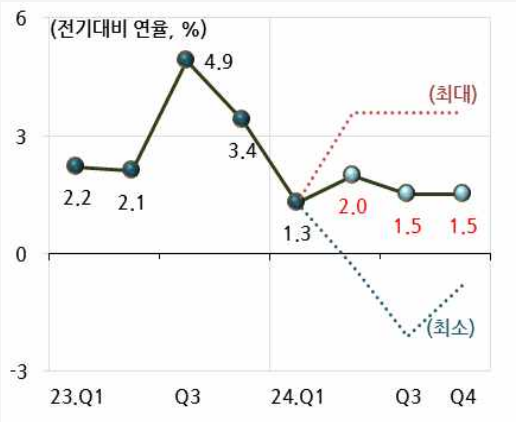
(1) 경기 방향성 결정 리스크 요인

향후 한국 경제는 ① G2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 경기 회복 강도, ② 미 FED의 금리 인하 시기에 따른 한국은행의 대응, ③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한 민간경제주체의 심리적 내성 강도 등의 리스크 요인에 따라 경기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① G2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 경기 회복 강도

우리나라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경제의 방향성에 따라 하반기 수출 경기의 회복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미국과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은 2023년 기준 전체 수출의 42%이며,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23.7%(중국 본토 19.7%, 홍콩 4.0%), 대 미국 수출 비중은 18.3%를 기록 중이다. 우선 최근 미국 경제의 방향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대두되고 있어, 현재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대(對)미국 수출 경기에 다소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IMF는 지난 4월 전망 자료에서 2024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2023년(2.5%)보다 높은 2.7%로 예측한 반면, IB들은 평균 2.4%로 소폭 하락을 전망하고 있다. 또한, IMF나 IB나 모두 2025년 경제성장률이 2%를 하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추세적으로 미국 경기가 향후 하강하는 방향임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중국 경제의 거시 지표는 양호한 수준이나, 내수 부문을 견인하는 주택시장의 조정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은 중국 경제의 방향성을 낙관하지 못 하게 하는 핵심 요인이다.** 주택시장(건설업 포함)의 중국 경제 성장 기여도는 분석 기관에 따라서 20~40%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이다. 그런데, 4월 현재 중국 주택가격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1%로 실질적으로 약 2년 동안 감소세를 지속 중인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 미국 분기 경제성장률 전망 >



자료: Bloomberg.
주: IB 70개 사 평균.

< 중국 분기 경제성장률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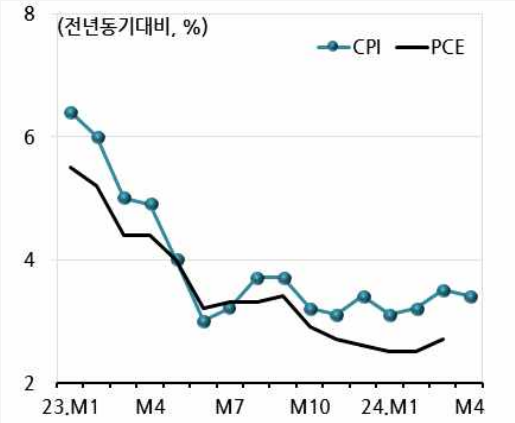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주: IB 34개 사 평균.

② 미 FED의 금리 인하 시기에 따른 한국은행의 대응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빠르게 해소되지 못함에 따라 미 FED의 금리 인하 시기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리질리언스를 강화하는 데 선제 조건인 국내 금리 인하도 상당 기간 지연될 우려가 존재한다. **미국 물가상승률이 목표치 2.0%로 접근하는 속도가 빠르지 않은 스티키 인플레이션(Sticky Inflation)의 모습을 지속 중이다.** 4월 미국 소비자물가(헤드라인)상승률은 3.4%, 근원소비자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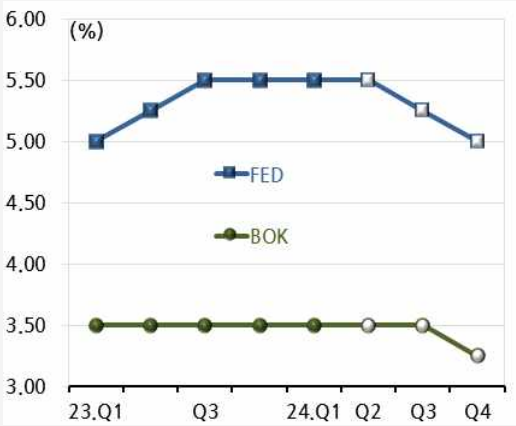
상승률은 3.6%로 여전히 3%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미 FED의 물가 안정 지표인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개인소비지출) 물가는 3월 전년동월대비 2.7%로 지난 1월(2.5%)을 저점으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미 FED의 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초 시장에서는 미 FED의 첫 금리 인하 시점이 5월 FOMC일 것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었으나, 최근 9월 FOMC에서의 피봇을 예상한다. 비록 일부 국가에서 미 FED의 피봇에 앞서 선제적 인하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경화(硬貨, hard currency)국이 아닌 한국 경제의 입장에서 우리 중앙은행인 한은이 미 FED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및 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 증가율 추이 >



자료: BLS, BEA.

< IB의 미국 및 한국 정책금리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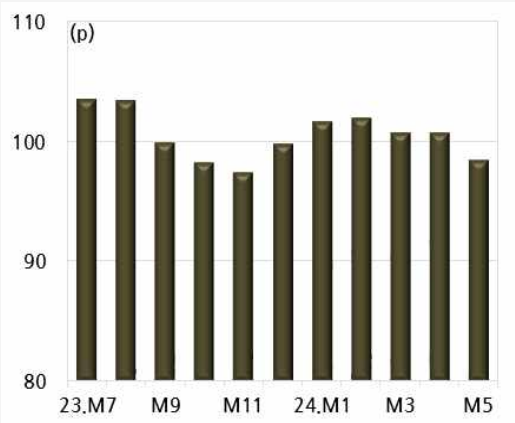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주: 중위값 기준.

③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한 민간경제주체의 심리적 내성 강도

소비심리와 투자심리가 코로나 팬데믹 위기 이후 대내외 리스크에 대한 내성(耐性)의 강도가 높아져 개선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물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자기확신(Self-confidence)이 높지 않아 경기 회복세 강화 여부가 불확실하다. 가계의 소비심리가 추세적으로는 분명히 개선되고 있으나 최근에 들어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실질구매력 위축으로 추가적인 심리적 개선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소비자심리지수(CCSI; 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는 '23년 11월 97.3p에서 상승 추세를 지속하여 올해 들어 기준치 100p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이번 5월에 98.4p로 다시 하락하였다. 이는 그동안 가계의 경기 회복에 대한 심리적 기대감은 있었으나, '24년 1분기 가계실질소득이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전년동기대비 △1.6%)하면서, 소비 여력 측면에서의 불안감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심리(BSI)도 개선되는 추세에 있으나, 기준치에 가까워지면서 개선 속도가 느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가계 부문과 마찬가지로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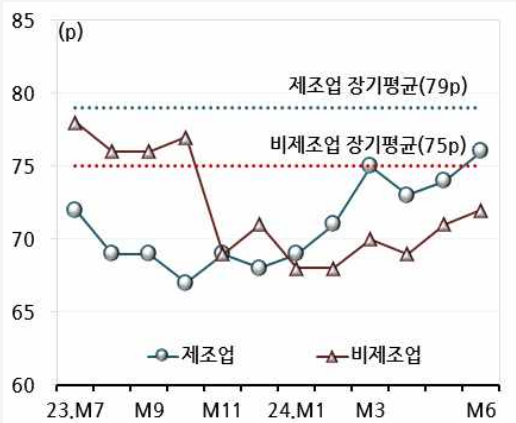
장에 대한 확신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 BSI를 보면 대부분 업종에서 업황에 대한 전망치의 개선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수출 경기가 이끄는 제조업과 내수 경기가 주된 비제조업 모두 기준치(제조업 장기평균 - 79p, 비제조업 장기평균 - 75p)에 미달하고 있는 점은 기업 주체들이 시장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소비자심리지수(CCSI) 추이 >



자료: 한국은행.

< 한은 BSI(제조업 및 비제조업) 추이 >



자료: 한국은행.

(2) 현 경기 판단 및 향후 경기 전망

(현 경기 판단) 2024년 2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의 회복력이 강화되면서 내수 섹터로의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국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 부문은 전년도의 기저효과, 반도체 품목 수출의 반등에 힘입어 강한 회복 국면에 진입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수 부문은 소비와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지만, 고금리·고물가 등의 시장 여건으로 실제 실물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자기확신(Self-confidence)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향후 경기 전망) 향후 한국 경제 상황이 수출 부문의 온기(溫氣)가 내수 부문으로 점차 확산되는 국면에 진입하는 희망을 가져 볼 수 있으나, 내수 부문의 리질리언스는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수출 경기 방향성과 민간주체들의 자신감 수준에 따라 회복 강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인 'U'자형 완만한 회복 시나리오는 수출 경기가 정상적인 회복 경로를 보이는 가운데, 내수가 수출 경기에 후행하면서 따라가는 수준일 경우의 완만한 회복 국면을 보이는 경로이다. 한편, 글로벌 경제 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수출의 리질리언스가 강화되거나,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동반되면서 민간 주체의 자기실현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이 자기확신(Self-confidence)으로 전환될 때 소비와 투자가 강한 탄력을 보이는 'V'자형 빠른 회복 시나리오의 가능성도 여전히 상존한다. 한편, 최근 경제 환경의 우호적 변화를 고려할 때, 지난 3월 현대경제연구원 자료(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 2024년 1분기)에서 제시된 'L'자형 침체 장기화 시나리오 가능성은 희박하

다고 판단된다.

< 향후 시나리오별 경기 추세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시사점

피봇(pivot, 금리 인하) 이전의 기간에 민간경제주체들의 소비 및 투자 여력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경제심리 안정을 위한 단기적인 '브릿지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내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유연한 통화정책 기조로의 전환과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정책 기조 유지가 필요하다. **둘째,** 경기 안전판의 역할을 하는 민간소비 회복 강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질구매력 확충 및 대안 소비시장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국내 투자 확충을 위해 양적인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기업친화적 투자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국제적인 신기술·신산업 허브화를 도모하여 한국으로의 투자 유인을 증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건설시장 수급 여건 악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통해 경제 파급력이 큰 건설업의 경기 급랭을 방지해야 한다. **다섯째,** 최근 대외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수출 시장의 외연을 확장하고 적극적인 대미 통상 협력 확대, 신흥 시장 개척, 원자재·소재·부품·장비의 공급망 안전성 강화 등의 리스크 관리 중심의 통상 정책 비중을 제고하여 수출 경기 회복 속도를 높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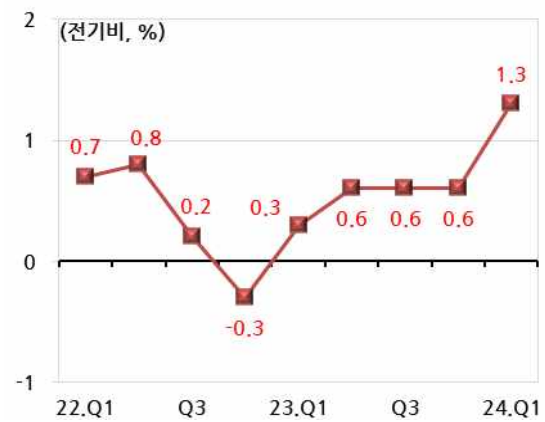
1. 개 요

○ (경기 회복 국면 진입) 한국 경제는 2분기 현재 수출 경기의 회복력이 낙수효과를 통해 강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내수 부문의 경기를 진작시키는 국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24년 1분기 경제성장률(속보치)은 전기비 1.3%로 '23년 4분기(0.6%)보다 크게 높아졌으며, 전년동기대비로는 3.4%를 기록**
  - '24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설비투자 침체(전기비 △0.8%)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0.8%), 건설투자(2.7%), 수출(0.9%)이 증가하면서 전기대비 1.3%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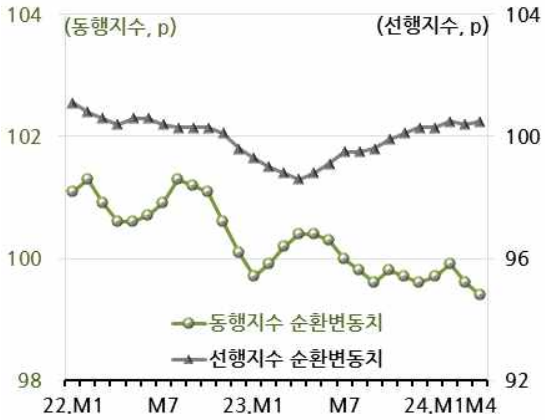
- **한편, 선행지수순환변동치가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으나 동행지수순환변동치 상 경기 저점은 아직 식별이 불가능한 상황**
  -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4월 현재 99.4p로 기존 저점인 '23년 12월 및 '24년 3월의 99.6p를 하회함
    ※ 동행지수순환변동치: 1월 99.7p, 2월 99.9p, 3월 99.6p, 4월 99.4p
  - 한편, 미래 경기 방향을 예고하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23년 4월(98.6p)에 저점을 형성한 이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경기 전환 신호를 예고함
    ※ 선행지수순환변동치: 1월 100.3p, 2월 100.5p, 3월 100.4p, 4월 100.5p

< 분기 경제성장률 >



자료: 한국은행.

< 경기 동행 및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자료: 통계청.

2. 수요부문별 및 산업별 경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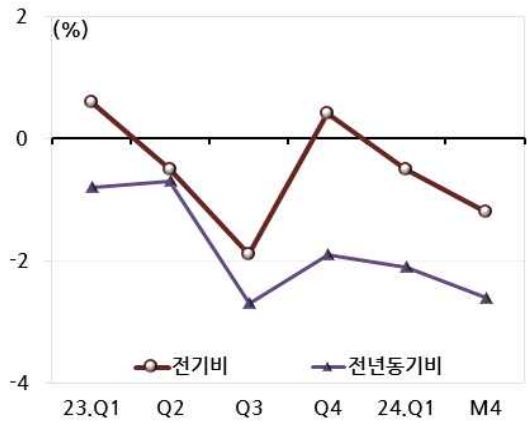
(1) 수요부문별 경기 동향

○ (소비 회복 지연) 수출(생산) 측면의 경기 회복세가 소비에 미치는 낙수효과(落水效果, trickle-down effect)는 아직 미약한 것으로 판단

- **재화 중심의 소비 지표인 4월 소매판매는 전월비 및 전년동월대비 모두 감소**
  - 소매판매 전월비 증가율은 3월 1.1%의 증가세에서 4월에 △1.2%의 감소세로 전환됨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QoQ, MoM): '23년 4분기 0.4%, '24년 1분기 △0.5%, 2월 △3.2%, 3월 1.1%, 4월 △1.2%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YoY): '23년 4분기 △1.9%, '24년 1분기 △2.1%, 2월 0.8%, 3월 △3.4%, 4월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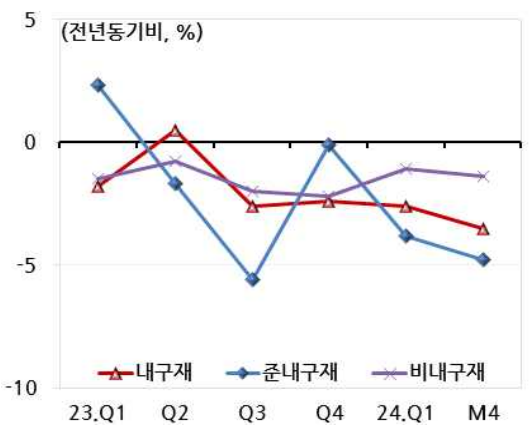
- **소비 항목별로 준내구재, 비내구재, 내구재 소비가 모두 침체를 지속**
  - 소비 선행지표로 인식될 수 있는 내구재 소비는 승용차, 통신기기·컴퓨터 등 품목에서 감소세를 지속함
    ※ 내구재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YoY): '23년 4분기 △2.4%, '24년 1분기 △2.6%, 2월 △8.9%, 3월 △5.2%, 4월 △3.5%
    ※ 비내구재판매액지수 증가율(YoY): '23년 4분기 △2.2%, '24년 1분기 △1.1%, 2월 7.8%, 3월 △1.9%, 4월 △1.4%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상품군별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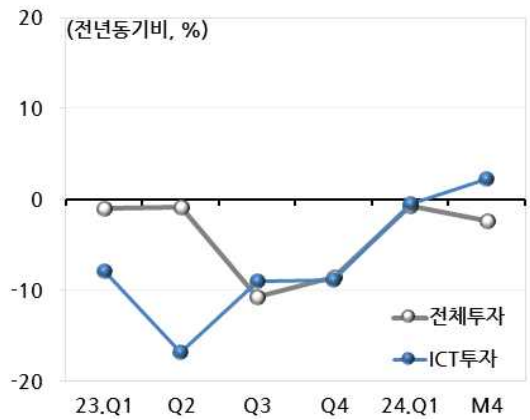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설비투자 침체) 고금리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급증, 내외수 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ICT 이외 투자의 침체가 지속

- 4월 설비투자는 전년동월비 및 전월비 기준 모두 감소
  · 4월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전년동월비('23년 4월 대비) 2.3% 감소하였으며, 전월대비('24년 3월 대비)로도 0.2% 감소함
    ※ 설비투자지수 증가율(YoY): '23년 4분기 △8.5%, '24년 1분기 △0.7%, 2월 △0.8%, 3월 △4.5%, 4월 △2.3%
  · 다만, 설비투자의 핵심인 4월 ICT투자가 전년동월 기준으로 2.3%의 증가세로 전환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ICT설비투자지수 증가율(YoY): '23년 4분기 △8.9%, '24년 1분기 △0.5%, 2월 △6.5%, 3월 △4.6%, 4월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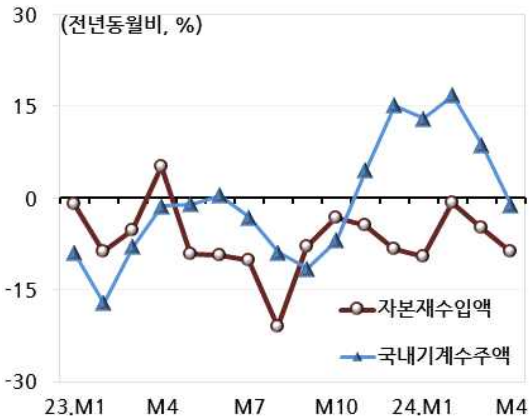
- 한편,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증가율과 자본재수입액증가율이 모두 하락하면서 설비투자의 회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
  · 자본재수입액은 '23년 5월 이후 현재까지 감소세를 지속 중임
    ※ 자본재수입액증가율(YoY): 1월 △9.6%, 2월 △0.8%, 3월 △4.9%, 4월 △8.7%
  · 국내기계수주는 '24년 3월 감소로 전환한 이후 2개월 연속 감소함
    ※ 국내기계수주액증가율(YoY)[1]: 1월 7.8%, 2월 21.3%, 3월 △3.1%, 4월 △21.6%

< 설비투자지수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국내기계수주액 및 자본재수입액 증가율 >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주: 국내기계수주액 증가율은 3개월 이동평균.

1) 국내기계수주액(선박·선박용내연기관제외) 증가율의 실제치이며, 그림은 3개월 이동평균치.

○ (건설수주 반등)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액은 증가세를 지속 중인 가운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이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반등하는 모습

-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공공 부문이 침체되었으나 민간 부문이 증가세를 지속

· 4월 건설기성액 증가율(전년동월비)은 2.5%의 상승세로 전환됨

※ 건설기성 증가율(YoY): '23년 4분기 3.0%, '24년 1분기 6.2%, 2월 2.9%, 3월 △1.7%, 4월 2.5%

· 발주자별로는 민간 부문이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공공 부문은 감소세를 지속함

※ 공공건설기성 증가율(YoY): '23년 4분기 △5.3%, '24년 1분기 △4.3%, 2월 △5.2%, 3월 △11.2%, 4월 △0.5%

※ 민간건설기성 증가율(YoY): '23년 4분기 4.7%, '24년 1분기 8.4%, 2월 4.2%, 3월 0.7%, 4월 3.4%

- 한편, 향후 건설 경기를 예고하는 건설수주액(선행지표)은 4월에 들어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

· 4월 수주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41.9%로 예상외로 큰 폭의 반등세를 보임

※ 건설수주 증가율(YoY): '23년 4분기 22.7%, '24년 1분기 △15.9%, 2월 △4.7%, 3월 10.2%, 4월 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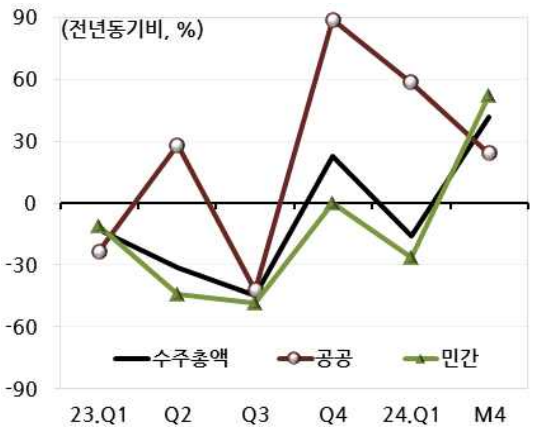
※ 공공건설수주 증가율(YoY): '23년 4분기 88.6%, '24년 1분기 58.2%, 2월 59.3%, 3월 79.2%, 4월 24.2%

※ 민간건설수주 증가율(YoY): '23년 4분기 0.1%, '24년 1분기 △26.6%, 2월 △15.5%, 3월 △1.5%, 4월 51.8%

< 발주자별 건설기성액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발주자별 건설수주액 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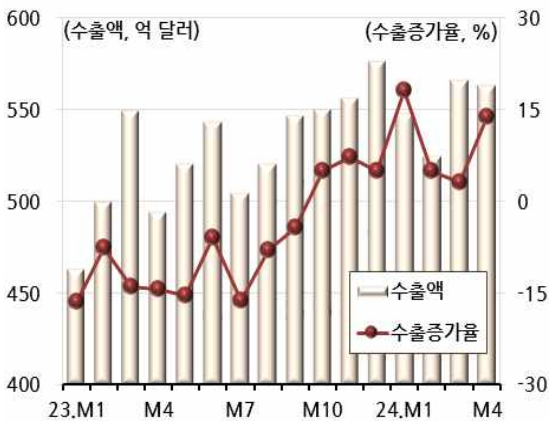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수출 경기 리질리언스 강화) 미국 시장의 호조, 반도체 수출 회복, 전년도 기저효과의 영향 등으로 수출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

- 4월 수출증가율은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23년 10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 4월 수출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3.8%로 3월(3.1%)보다 증가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수출 회복세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임
    ※ 수출액 증가율: '23년 12월 5.0%, '24년 1월 18.2%, 2월 4.8%, 3월 3.1%, 4월 13.8%
  - 한편, 4월 수출 물량증가율이 전년동월대비 9.6%이며, 수출 단가증가율이 4.2%로 물량증가가 수출 경기를 견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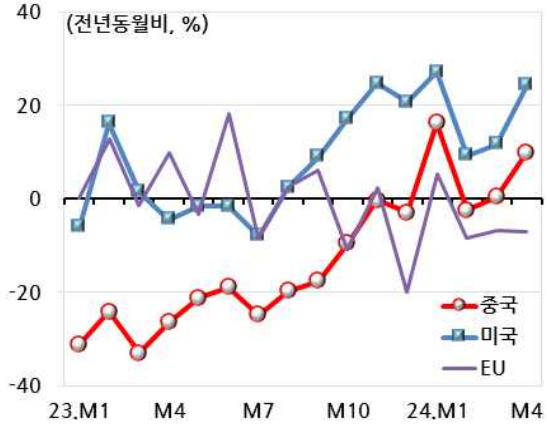
- 지역별로는 對미국 수출이 호조를 지속 중인 가운데 對중국 수출이 미약하나마 증가세를 기록 중이며, 품목별로는 대부분 증가세를 시현
  - 對중국 수출은 3월과 4월에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함
    ※ 對중국 수출증가율: '23년 12월 △3.0%, '24년 1월 16.2%, 2월 △2.5%, 3월 0.3%, 4월 9.9%
  -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전년동월비 56.1%), 디스플레이(16.3%), 자동차(10.3%), 무선통신기기(11.4%) 등 대부분 품목이 호조를 보였으나, 철강제품(△5.7%), 이차전지(△20.1%) 등 일부 품목은 부진한 모습을 보임

< 월별 수출증가율 >



자료: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 주요 시장별 수출증가율 >



자료: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 (실업률 상승 속 제조업 고용창출력 강화) 실업률이 높아지고 구직단념자도 증가하는 가운데, 취업 시장에서 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이 상승

- 4월 실업률은 전년대비 상승하였으며 구직단념자도 증가세로 전환

  · 4월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23년 4월 2.8%)보다 악화되었으며,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2]도 '23년 4월 32.4만 명에서 '24년 4월 36.9만 명으로 증가함

- 4월 신규취업자(취업자 수 증감)는 전년동월비 26.1만 명으로 3월의 17.3만 명보다 증가하였는데, 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이 확대되는 모습은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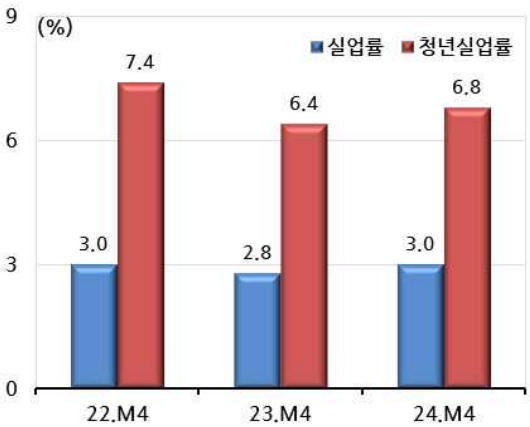
  · 4월 중 취업자 수 증감분(전년동월비)은 26.1만 명으로 3월(17.3만 명)보다 상승함

  ※ 취업자 증감(YoY): '23년 12월 28.5만 명, '24년 1월 38.0만 명, 2월 32.9만 명, 3월 17.3만 명, 4월 26.1만 명

  · 4월 중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비)은 제조업 10.0만 명, 건설업 0.5만 명, 서비스업 14.6만 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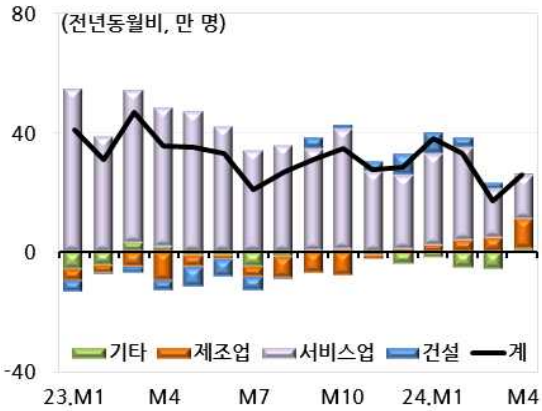
  · 다만, 4월 취업자수 증가의 대부분은 50세 이상 연령층이 주도(전년동월비 30.8만 명)하고 있으며, 청년층 일자리는 축소됨(15~29세 △8.9만 명)

< 4월 기준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



자료: 통계청.

< 주요 산업별[3] 취업자 증감 >



자료: 통계청.

2) 비경제활동인구(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 중 구직단념자는 취업 의사와 일할 능력이 있지만, 일정한 사유로 이전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 중 1년 안에 구직경험이 있는 자를 의미.

3) 기타는 광업, 유틸리티,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의 합계.

○ (공급측 인플레 압력 상존) 근원물가 상승률의 하락 추세를 고려할 때 수요측 인플레이션 압력은 강하지 않다고 판단되나, 고유가, 고환율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기후적 요인에 의한 농산품 수급 차질 등의 공급측 인플레이션 압력은 상존

- 4월 중 수입물가가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생산자물가는 상승률이 증가

  · 4월 수입물가는 국제유가 및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3월 △0.5%의 감소세에서 2.9%의 증가세로 전환됨

  ※ 수입물가상승률(YoY): 1월 0.7%, 2월 △0.2%, 3월 △0.5%, 4월 2.9%

  · 4월 생산자물가상승률은 농림수산품, 공산품, 유틸리티, 서비스 등의 품목군 물가가 모두 상승하여 3월 전년동월비 1.5%에서 4월에 1.8%로 높아짐

  ※ 생산자물가상승률(YoY): 1월 1.3%, 2월 1.4%, 3월 1.5%, 4월 1.8%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월과 3월에 일시적으로 3%대로 높아졌으나 4월 중 2%대로 다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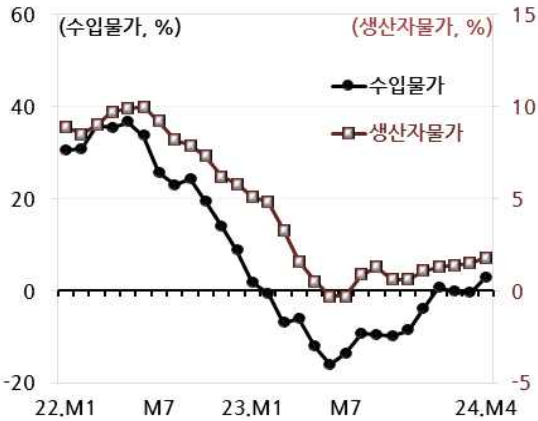
  ·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농산물 가격이 급등(전년동월대비 20.3%)해 있는 상황이나, 공업제품과 서비스 물가상승률이 2%대 초반의 안정적 모습을 보임에 따라 다시 2%대로 진입함

  ※ 소비자물가상승률(YoY): 1월 2.8%, 2월 3.1%, 3월 3.1%, 4월 2.9%

  · 일시적 변동 요인을 제외한 4월 근원물가상승률은 2.3%로 3월보다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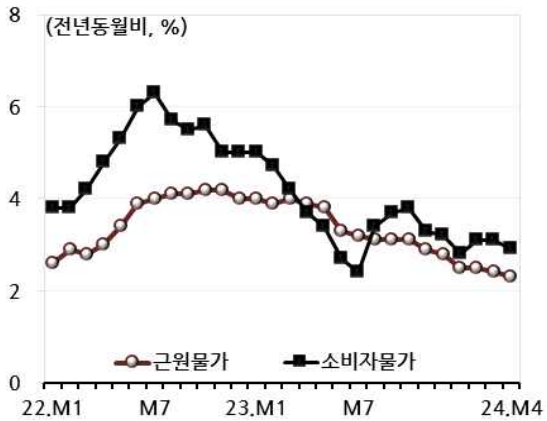
  ※ 근원물가상승률(YoY): 1월 2.5%, 2월 2.5%, 3월 2.4%, 4월 2.3%

< 생산자물가 및 수입물가 상승률 >



자료: 한국은행.
주: 전년동월비 기준.

<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



자료: 통계청.
주: 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기준.

○ (민간주체의 경기 방향성 탐색) 가계의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정체 중이며, 기업의 투자 심리도 기준치 아래에서 방향성을 모색 중

- 가계의 현재 경기 판단이나 향후 경기 상황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는 CSI는 '22년 하반기 이후 개선세를 보이다가 최근 정체되는 모습

  · 가계의 현재 경기상황에 대한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 CSI는 5월 67p로 4월(68p)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함

  ※ 현재경기판단 CSI: 1월 69p, 2월 70p, 3월 68p, 4월 68p, 5월 67p

  · 다만, 향후경기전망 CSI는 4월 81p에서 5월에 79p로 소폭 하락함

  ※ 향후경기전망 CSI: 1월 81p, 2월 80p, 3월 80p, 4월 81p, 5월 79p

- 한경협 BSI와 한은 BSI 등의 기업심리지수[4]도 올해 들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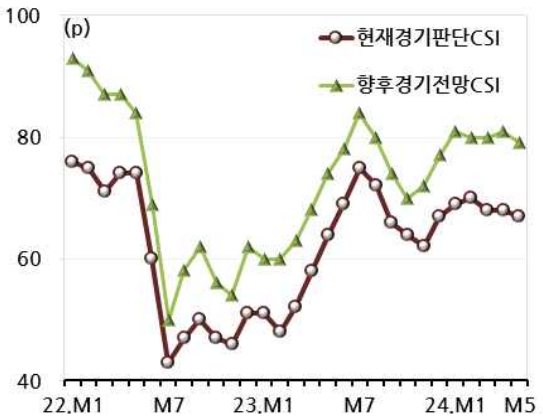
  · 한경협 BSI(전망)는 5월 94.9p에서 6월에 95.5p로 소폭 상승함

  ※ 한경협 BSI(전망): 1월 91.1p, 2월 92.3p, 3월 97.0p, 4월 98.6p, 5월 94.9p, 6월 95.5p

  · 또한, 한은 6월 BSI(전국/전산업/업황전망)도 74p로 5월(73p)보다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장기 추세(77p)에는 미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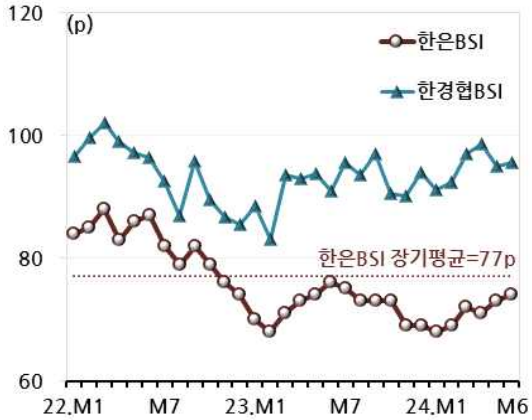
  ※ 한은 BSI(전국/전산업/업황전망): 1월 68p, 2월 69p, 3월 72p, 4월 71p, 5월 73p, 6월 74p

< 현재경기판단 및 향후경기전망 CSI >



자료: 한국은행.

< 주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자료: 한국은행, 한국경제인협회.

4) 한경협 BSI(600대 기업 대상)는 대기업의 시각을, 한은 BSI(약 3,000여 개 기업 대상)는 중소기업의 시각을 더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 한편, 한은 BSI(업황전망)의 명목적 기준치는 100p이나 장기 평균치는 77p임.

(2) 산업별 경기 동향

○ (전산업) 4월 전산업 생산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확대되면서 대부분 산업 생산이 활력을 시현

- 4월 전산업 생산증가율은 전년동월비와 전월비 모두 증가세를 기록

· 전년동월비 기준으로 전산업 생산증가율은 3월 0.1%에서 4월에 3.1%로 크게 반등함

※ 전산업 생산지수증가율(YoY): 1월 7.2%, 2월 1.8%, 3월 0.1%, 4월 3.1%

· 전월비 기준으로는 지난 3월의 감소세에서 4월에 증가세로 전환됨

※ 전산업 생산지수증가율(MoM): 1월 0.3%, 2월 1.3%, 3월 △2.3%, 4월 1.1%

- 4월 중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부분 업종의 생산 증가세가 1년 전에 비해 개선되는 모습

· 수출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광공업 생산증가율은 3월 전년동월비 1.0%에서 4월에 6.1%로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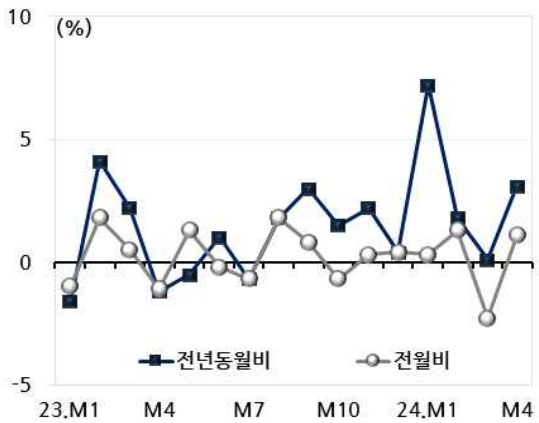
※ 광공업 생산증가율(YoY): 1월 12.9%, 2월 4.6%, 3월 1.0%, 4월 6.1%

※ 광공업 수출출하증가율(YoY): 1월 9.2%, 2월 3.1%, 3월 1.2%, 4월 7.9%

※ 광공업 내수출하증가율(YoY): 1월 8.4%, 2월 △3.1%, 3월 △5.8%, 4월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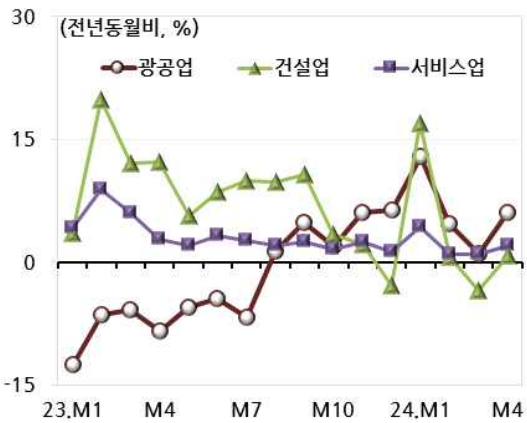
· 전년동월비 4월 건설업 생산증가율은 0.8%이며, 서비스업과 공공행정은 각각 2.0% 및 4.3%를 기록함

< 전산업생산지수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주요 산업생산지수 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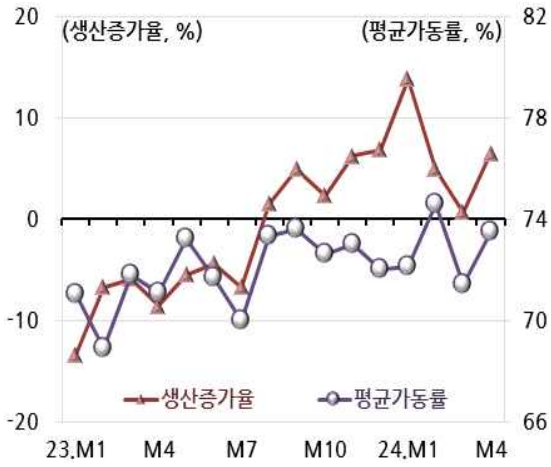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제조업) 재고·출하 사이클상 완연한 시장 수요 회복의 모습을 보이면서 제조업 경기의 추세적인 회복을 강하게 시사

- 수출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최근 제조업 생산의 확장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평균가동률도 높아지는 모습
  - 4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주력 업종인 반도체(22.3%), 자동차(3.4%) 등에서 호조를 보여 6.5% 증가함
    ※ 제조업 생산증가율(YoY): 1월 13.8%, 2월 4.9%, 3월 0.7%, 4월 6.5%
  - 한편, 4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3월보다 크게 높아진 73.5%를 기록함
    ※ 제조업 평균가동률: 1월 72.1%, 2월 74.6%, 3월 71.4%, 4월 7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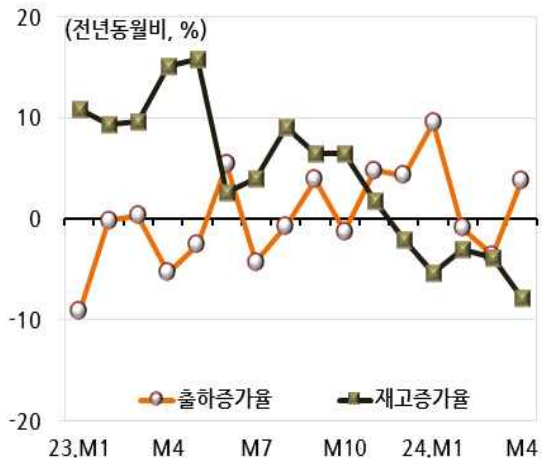
- 출하가 증가세로 전환되고 재고증가율이 감소하면서 제조업의 시장 수요 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판단
  - 제조업 출하(전년동월대비)는 2월과 3월에 일시적으로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나, 4월에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됨
    ※ 출하증가율(YoY): 1월 9.5%, 2월 △0.9%, 3월 △3.6%, 4월 3.8%
  - 한편, 재고증가율은 '23년 12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 중임
    ※ 재고증가율(YoY): 1월 △5.4%, 2월 △3.0%, 3월 △3.8%, 4월 △7.8%

< 제조업 생산증가율 및 가동률 >



자료: 통계청.
주: 생산증가율은 전년동월비.

< 제조업 재고 및 출하 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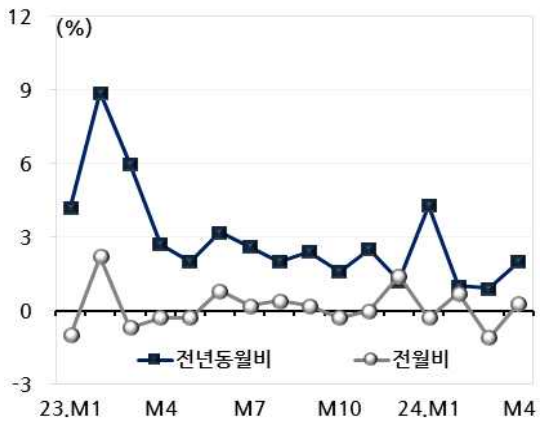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비제조업) 서비스업 생산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건설수주는 건축과 토목이 모두 큰 폭의 반등세를 기록

- (서비스업) 재화와 서비스 소비 전반의 상황을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증가세를 기록
  · 전월비 기준 서비스업 생산은 3월 △1.1%에서 4월에 0.3%의 증가세로 전환됨
    ※ 서비스업 생산증가율(YoY): 1월 4.3%, 2월 1.0%, 3월 0.9%, 4월 2.0%
    ※ 서비스업 생산증가율(MoM): 1월 △0.3%, 2월 0.7%, 3월 △1.1%, 4월 0.3%
  · 전월비 기준으로 4월 중 도소매(1.7%), 운수·창고(1.3%) 등의 생산은 호조를 보이나, 부동산(△1.8%), 숙박·음식점(△2.1%) 등은 위축되는 모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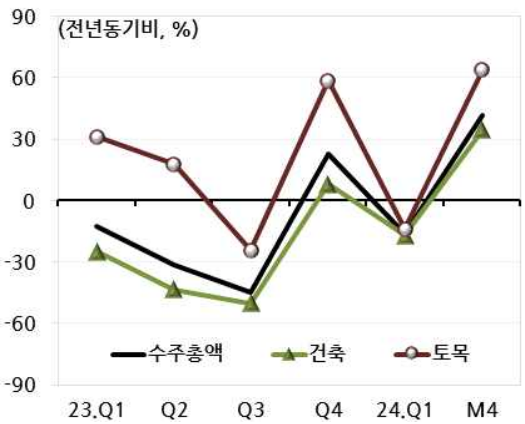
- (건설업) 건설업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4월 중 토목 부문과 건축 부문이 모두 큰 폭으로 반등
  · '24년 1분기에 침체를 보였던 건설수주(전년동월비)는 4월에 들어 건축 부문(34.4%)과 토목 부문(63.8%)이 모두 큰 폭의 반등세를 기록함
    ※ 토목건설수주 증가율(YoY): '23년 4분기 58.5%, '24년 1분기 △13.9%, 2월 27.8%, 3월 103.0%, 4월 63.8%
    ※ 건축건설수주 증가율(YoY): '23년 4분기 8.1%, '24년 1분기 △16.9%, 2월 △11.9%, 3월 △14.7%, 4월 34.4%

<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



자료: 통계청.

< 공종별 건설수주액증가율 >



자료: 통계청.

3. 향후 경기 리스크 요인과 경기 전망

(1) 경기 방향성 결정 리스크 요인

○ 향후 한국 경제는 ① G2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 경기 회복 강도, ② 미 FED의 금리 인하 시기에 따른 한국은행의 대응, ③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한 민간경제주체의 심리적 내성 강도 등의 리스크 요인에 따라 경기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

① G2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 경기 회복 강도

○ 우리나라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경제의 방향성에 따라 하반기 수출 경기의 회복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

- 우리나라의 미국과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은 2023년 기준 전체 수출의 42%이며,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23.7%(중국 본토 19.7%, 홍콩 4.0%), 대 미국 수출 비중은 18.3%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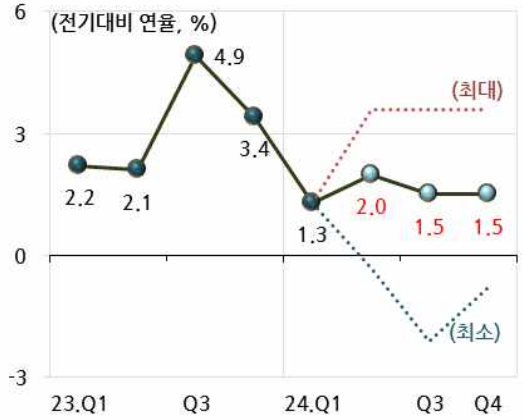
- 최근 미국 경제의 방향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대두되고 있어, 현재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대(對)미국 수출 경기에 다소의 불확실성이 존재
  · IMF는 지난 4월 전망 자료에서 2024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2023년(2.5%)보다 높은 2.7%로 예측한 반면, IB들은 평균 2.4%로 소폭 하락을 전망함
  · 또한, IMF나 IB나 모두 2025년 경제성장률이 2%를 하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추세적으로 미국 경기가 향후 하강하는 방향임을 시사함

- 중국 경제의 거시 지표는 양호한 수준이나, 내수 부문을 견인하는 주택시장의 조정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은 중국 경제의 방향성을 낙관하지 못 하게 하는 핵심 요인
  · 주택시장(건설업 포함)의 중국 경제 성장 기여도는 분석 기관에 따라서

20~40%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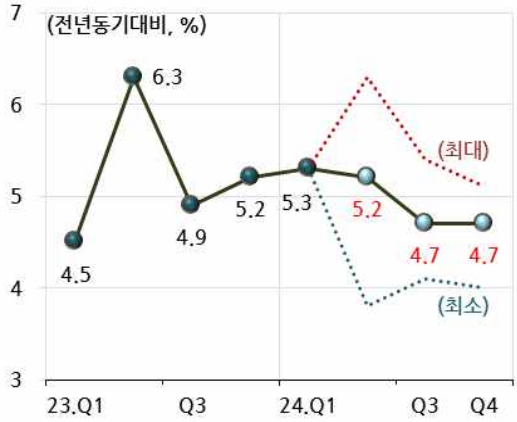
· 4월 현재 중국 주택가격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1%로 실질적으로 약 2년 동안 감소세를 지속 중임

< 미국 분기 경제성장률 전망 >



자료: Bloomberg.
주: IB 70개 사 평균.

< 중국 분기 경제성장률 전망 >



자료: Bloomberg.
주: IB 34개 사 평균.

② 미 FED의 금리 인하 시기에 따른 한국은행의 대응

○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빠르게 해소되지 못함[5]에 따라 미 FED의 금리 인하 시기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리질리언스를 강화하는 데 선제 조건인 국내 금리 인하도 상당 기간 지연될 우려가 존재

- 미국 물가상승률이 목표치 2.0%로 접근하는 속도가 빠르지 않은 스티키 인플레이션(Sticky Inflation)의 모습을 지속 중

· 4월 미국 소비자물가(헤드라인)상승률은 3.4%, 근원소비자물가상승률은 3.6%로 여전히 3%대를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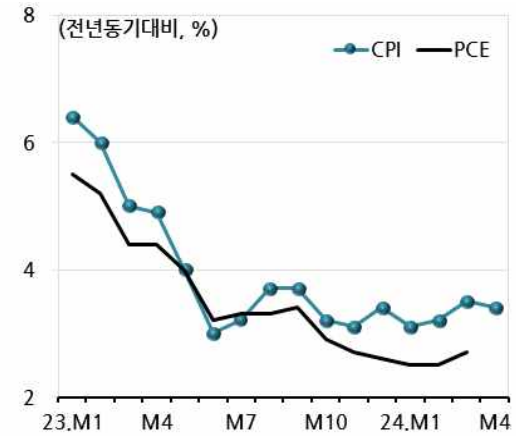
· 또한, 미 FED의 물가안정지표인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개인소비지출)물가[6]는 3월 전년동월비 2.7%로 지난 1월(2.5%)을 저점으로 재상승함

5) 인플레이션 초반에는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빠르게 물가상승률을 낮출 수 있으나, 물가상승률 목표치에 근접하면서 물가상승률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의미함. 실제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2년 6월 전년동월대비 9.1%에서 만 1년 만인 2023년 6월에 3%대로 진입하였으나, 이후 현재까지 3%대를 지속 중.

6) 실제 미 FED에서는 주거비 가중치가 약 20% 정도이며, CPI와 달리 분기 단위로 소비자 지출항목의 비중을 변화시켜 지표의 설명력이 높은 PCE 물가를 핵심 지표로 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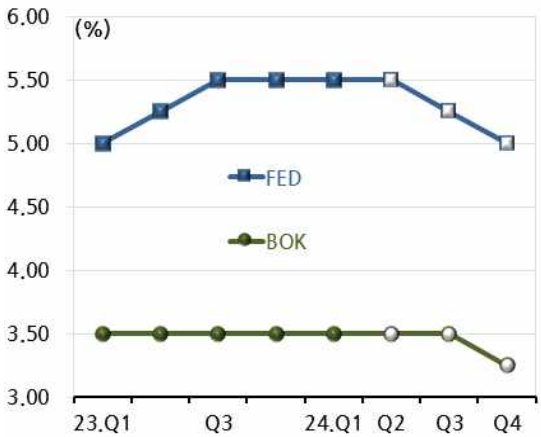
- 이에 따라 미 FED의 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증대
  - 올해 초 시장에서는 미 FED의 첫 금리 인하 시점이 5월 FOMC일 것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었으나, 최근 9월 FOMC에서의 피봇을 예상함
  - 일부 국가에서 미 FED의 피봇에 앞서 선제적 인하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경화(硬貨, hard currency)국이 아닌 한국 경제의 입장에서 우리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미 FED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및 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 증가율 추이 >



자료: BLS, BEA.

< IB의 미국 및 한국 정책금리 전망 >



자료: Bloomberg.
주: 중위값 기준.

③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한 민간경제주체의 심리적 내성 강도

○ 소비심리와 투자심리가 코로나 팬데믹 위기 이후 대내외 리스크에 대한 내성(耐性)의 강도가 높아져 개선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물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자기확신(Self-confidence)이 없어 경기 회복세의 강화가 쉽지 않은 상황

- 가계의 소비심리가 추세적으로는 분명히 개선되고 있으나 최근에 들어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실질구매력 위축으로 추가적인 심리적 개선의 모습은 관찰되지 못하는 상황

· 소비자심리지수(CCSI; 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7]는 '23년 11월 97.3p에서 상승 추세를 지속하여 올해 들어 기준치 100p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이번 5월에 98.4p로 다시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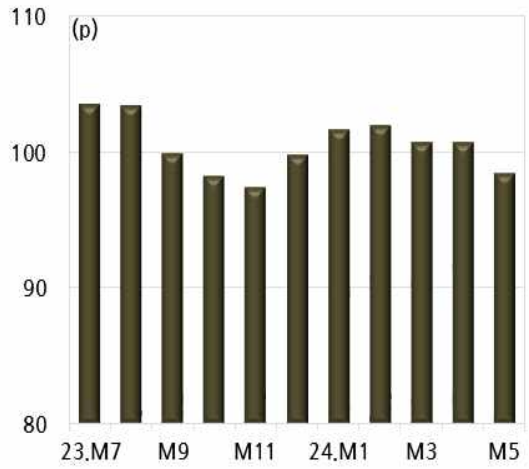
· 그동안 가계의 경기 회복에 대한 심리적 기대감은 있었으나, '24년 1분기 가계실질소득이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전년동기대비 △1.6%)하면서, 소비 여력 측면에서 불안감이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기업심리(BSI)도 개선되는 추세에 있으나, 기준치에 가까워지면서 개선 속도가 느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가계 부문과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한 확신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한은 BSI를 보면 대부분 업종에서 업황에 대한 전망치의 개선 추세가 유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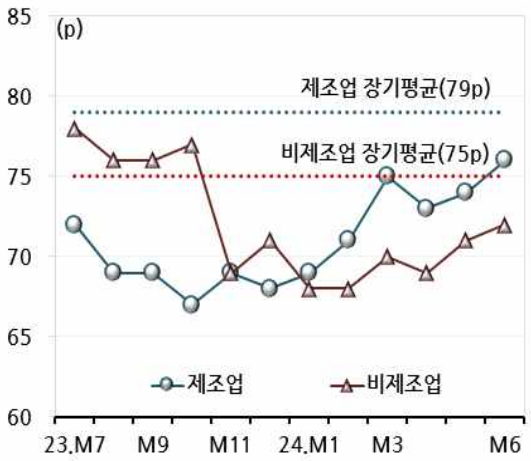
· 그러나, 수출 경기가 이끄는 제조업과 내수 경기가 주된 비제조업 모두 기준치(제조업장기평균-79p 비제조업장기평균-75p)에 미달하고 있는 점은 기업 주체들이 시장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소비자심리지수(CCSI) 추이 >



자료: 한국은행.

< 한은 BSI(제조업 및 비제조업) 추이 >



자료: 한국은행.

7)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현재생활형편CSI, 생활형편전망CSI, 가계수입전망CSI, 소비지출전망CSI, 현재경기판단CSI, 향후경기전망CSI의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평균치(2003년 1월 ~ 2023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

(2) 현 경기 판단 및 향후 경기 전망

- **(현 경기 판단) 2024년 2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의 회복력이 강화되면서 내수로의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국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
  - 수출 부문은 전년도의 기저효과, 반도체 품목 수출의 반등에 힘입어 강한 회복 국면에 진입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내수 부문은 소비와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지만, 고금리·고물가 등의 시장 여건으로 실제 실물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자기확신(Self-confidence)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임

- **(향후 경기 전망) 향후 한국 경제 상황이 수출 부문의 온기(溫氣)가 내수 부문으로 점차 확산되는 국면에 진입하는 희망을 가져 볼 수 있으나, 내수 부문의 리질리언스는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수출 경기 방향성과 민간주체들의 자신감 수준에 따라 회복 강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8]**
  - **'U'자형 완만한 회복 시나리오** : 수출 경기가 정상적인 회복 경로를 보이는 가운데, 내수가 수출 경기에 후행하면서 따라가는 수준일 경우의 완만한 회복 국면을 보이는 경로임
  - **'V'자형 빠른 회복 시나리오** : 글로벌 경제 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수출의 리질리언스가 강화**되거나,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동반되면서 민간 주체의 자기실현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이 자기확신(Self-confidence)으로 전환될 때 **소비와 투자가 강한 탄력**을 보이는 경로임

< 향후 시나리오별 경기 추세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8) 최근 경제 환경의 우호적 변화를 고려하여, 지난 3월 현대경제연구원 자료(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4년 1분기)에서 제시된 L자형 침체 장기화 시나리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보고서에서는 제외.

4. 시사점

첫째, 내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유연한 통화정책 기조로의 전환과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정책 기조 유지가 필요하다.

- 최근 각국 상황에 맞는 통화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미 FED의 피봇 이전에 우리나라의 금리정책 기조의 변화가 가능한지를 면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 한편 불가피하게 고금리를 유지해야 할 경우, 시장의 고금리가 내수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노력이 요구됨

- 제한된 재정 여력 하에서 재정의 적시성(適時性, proper timing) 확보 및 집속도(集束度, focusing) 제고를 통해 공공 부문의 경기조절 능력을 높여야 할 것임

- 한편, 상반기 재정조기집행률 제고의 영향으로 하반기 세수 부족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경제 회복력에 따른 세수 증가분과 재정 소요분의 세밀한 추계를 통한 정확한 '재원 수급' 시나리오가 담겨야 할 것임

둘째, 경기 안전판의 역할을 하는 민간소비 회복 강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질구매력 확충 및 대안 소비시장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

- 현재 일시적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면제),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운용 등의 정부의 미시적 물가 안정 노력이 하반기에도 지속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가계부채의 고정금리 비중 확대를 위한 금융기관에 대한 독려와 인센티

브 제고 노력을 지속하여, 내수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고금리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야 할 것임

- 한편, 시장 수요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하기 전의 취약한 시장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관광 시장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임

셋째, 국내 투자 확충을 위해 양적인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기업친화적 투자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국제적인 신기술·신산업 허브화를 도모하여 한국으로의 투자 유인을 증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지속적인 기업 관련 규제 완화 노력, 금융·세제상 지원 확대, 기업인의 사기 진작 정책, 노사 관계 안정 등의 다각적인 투자 활성화 정책이 필요함

- 또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 전용 특구를 조성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인프라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넷째, 건설시장 수급 여건 악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통해 경제 파급력이 큰 건설업의 경기 급랭을 방지해야 한다.

- 부동산 시장에서 수급 불일치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필요에 따라 일시적인 규제 완화책을 병행하여, 안정적인 수준에서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

- 한편, 부동산 버블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건설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건설 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 실수요자에 대한 시장 접근성 강화 등의 시장 정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임

- 특히, PF 시장에 대해서는 급격한 구조조정보다는, 합리적 수준의 개입과 관리를 통해 건설 경기가 연착륙 국면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다섯째, 최근 대외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수출 시장의 외연을 확장하고 적극적인 대미 통상 협력 확대, 신흥 시장 개척, 원자재·소재·부품·장비의 공급망 안전성 강화 등의 리스크 관리 중심의 통상 정책 비중을 제고하여 수출 경기 회복 속도를 높여야 한다.

- 우리 주력 수출시장인 G2를 대체할 수 있고 고유가로 구매력까지 높아진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와 비교적 경기 회복세가 빠른 인도와 ASEAN 지역에 대한 수출 증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한편, 한류 현상의 전 세계적 확산을 계기로 K-푸드, K-뷰티, K-모빌리티, K-가전 등에 대하여 한류 붐이 우리 소비재 수출로 연계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미·중 갈등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하여, 주요국에 대한 통상 협력 확대와 핵심 원부자재의 안정적 조달에 대한 민·관의 소통 확대와 협력 강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HRI

주 원 경제연구실장(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